

허혈성심질환과 뇌경색 환자의 혈장 지질과 항산화계 상태에 관한 연구

이난희¹, 조성희¹, 최영선², 박의현³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¹, 대구대학교² 식품영양학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³

허혈성심질환(IHD)과 뇌경색(CI)으로 입원한 50세 이상의 남자 각각 36명, 26명을 대상으로 혈장 지질과 과산화지질, 비타민 A, E, β-carotene 상태, 적혈구의 지방산 구성과 혈소판의 glutathione peroxidase (GPx) 및 catalase 활성을 조사하였다. 대조군은 연령이 유사하며 건강한 남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혈장 총콜레스테롤은 대조군, IHD, CI군이 각각 172, 179, 190 mg/dl이며 중성지질은 158, 149, 175로 CI환자들이 높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Lp(a)는 대조군, IHD, CI군이 각각 16.7, 32.2, 38.5 mg/dl로 환자군이 높은 경향이었고, apoB는 118, 107, 123 mg/dl로 군간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적혈구 지질의 지방산 조성은 대조군에 비하여 환자군이 palmitic acid와 oleic acid가 높고, arachidonic acid가 낮은 경향이었다. 혈장 retinol은 대조군, IHD, CI군이 각각 0.76, 0.57, 0.70 µg/ml로 IHD군이 타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α-tocopherol은 9.11, 8.22, 8.41 µg/ml로 환자들이 낮았다. Beta-carotene 수준은 대조군, IHD, CI군이 각각 31.3, 36.8, 39.5 ng/ml으로 환자군이 높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혈장 과산화지질의 수준은 1.65 - 2.17 MDA nmoles/ml로 군간의 차이는 없었고, 혈소판의 GPx 활성은 CI군이 다소 높았으며, catalase의 활성은 대조군에 비하여 환자군들이 높았으며 그 중 CI군이 제일 높았다. 환자군들은 혈청 지질, 특히 Lp(a)가 높고 비타민 E의 수준이 낮아 질병의 원인 (또는 결과)으로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혈장 지질과 산화물이 높지 않았던 것은 항산화계 효소 활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현상이 질환의 진행에 따른 적응현상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